

曾點과 朝鮮時代 儒學者들

임종진*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주자와 왕양명의 증점에 대한 평가
- III.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 1. 조선시대 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 2. 조선시대 비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孔子의 弟子이자 曾子의 아버지인 曾點은 남겨진 기록들에 근거할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물이다. 『論語』 「先進」篇 〈浴沂章〉에 실린 답변 내용만으로도 그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 이후 많은 유학자들은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 관점에서 曾點을 평가하였으며, 그러한 평가를 종합한 朱子의 경우에는 曾點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狂'과 관련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朱子와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는 王陽明의 경우에는 이러한 '狂'마저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朝鮮의 많은 儒學者들은 曾點과 관련된 『論語』의 기록을 소재로 하여 적지 않은 글을 남겼는데, 많은 경우에 문학적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리고 思想的 側面에서 볼 때 曾點에 대한 朝鮮儒學者들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역시 朱子이다. 退溪 李滉, 栗谷 李珣 등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曾點에 대한 朱子의 견해에 공감하고 동조하였다. 이 경우에 朝鮮의 朱子學者들은 대부분 曾點에 대하여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소수에 그쳤다. 또한 朝鮮儒學界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지만 張維 등 朝鮮의 陽明學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王陽明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丁若鏞 등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曾點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曾點, 朱子, 王陽明, 朝鮮儒學者, 『論語』 「先進」篇 〈浴沂章〉, 狂

I. 들어가는 말

증점은 누구인가? 그는 공자의 제자이자 증자의 아버지이다. 증점은 어떤 인물인가? 그 대답과 관련해서는 먼저 아래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피소드 1〉

『論語』 「先進」편의 마지막 章인 25章〔浴沂章 또는 吾與點也章〕은 『論語』에서 가장 긴 문장인데, 孔子(前551-前479)와 그의 제자인 子路(前542-前480), 冉有(前522-?), 公西華(前509-?), 曾皙(生沒年代 未詳)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평소의 품은 뜻을 말해보라는 공자의 제안에 세 제자는 현실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 정치적 포부를 밝혔으나 증석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대답을 하였다.

(공자께서) “점아! 너는 어떠하나?”라고 하시자, 증석은 비파 타던 속도를 늦추다가 텅그렁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것을 멈추고는, 비파를 밀어 놓고 일어나서 “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증석이) “늦은 봄날에 봄옷이 마련되면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며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니, 공자께서 크게 감탄하시며 “나는 증점을 허여하노라”하고 말씀하셨다.¹⁾

<에피소드 2>

증자가 오이 밭을 매다가 잘못하여 그 뿌리를 잘랐다. 그러자 증석이 노하여 큰 지팡이로 증자를 후려했다. 증자는 땅에 넘어져서 한참 후에야 깨어났는데, 벌떡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나아가서 “방금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힘써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괜찮으시지요?”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물러나서 병풍 뒤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이는 증석이 그 노래 소리를 들도록 하여 자신이 평온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함이었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문인들에게 “증삼이 오거든 들여보내지 마라”하고 말하였다. 증자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다고 여겨 사람을 시켜 공자에게 항의토록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너는 고수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겠지. 그 순 임금이 그의 아버지를 섬길 때, 일을 시키려 찾을 때는 곁에 없었던 적이 없지만 찾아서 죽이려고 찾을 때는 찾아낼 수 없게 하였다. 작은 회초리 일 때는 곁에 있었지만, 큰 몽둥이 일 때는 달아나서 아버지의 포악한 노기를 피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온몸을 맡겨 포악한 노기를 기다리고 공손히 서서 도망가지 않았으니, 이는 네 몸을 죽여 아버지를 함정에 넣은 것이니 불의와 불효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이나? 너는 천자의 백성이 아니더냐. 천자의 백성을 죽이게 되면, 그 죄가 어떠하겠느냐?” 증자의 자질에다 더 나아가 공자의 문하에 있으면서도 죄가 있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의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²⁾

1) 『論語集註』 「先進」 11:25,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 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2) 『說苑』 卷3 「建本」, “曾子芸瓜而誤斬其根, 曾皙怒, 援大杖擊之, 曾子仆之. 有頃蘇, 蹶然而起, 進曰, 曩者參得罪於大人, 大人用力教參, 得無疾乎. 退屏鼓琴而歌, 欲令曾皙聽

〈에피소드 3〉

계무자가 병으로 들어 누웠다 ... 그가 죽어서 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증점은 그 문에 기대어서 노래를 불렀다.³⁾

증석⁴⁾ 즉 증점이라는 인물은 『논어』에서 단 한 차례, 위에서 인용한 대화에만 등장한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대답은 공자로부터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송대 이후 여러 유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한 마디 대답’으로 송대 이후 중국 유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증점에 대하여 송명유학을 대표하는 주자와 왕양명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간략히 검토한 후, 朝鮮의 儒學者들은 증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했는지를 특히 문학 자료의 분석이라는 방법을 일부 활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유학의 사상적 특징과 증점이라는 인물이 조선유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其歌聲，令知其平也。孔子聞之，告門人曰，參來，勿來也。曾子自以無罪，使人謝孔子。孔子曰，汝聞瞽叟有子名曰舜，舜之事父也，索而使之，未嘗不在側，求而殺之，未嘗可得。小箠則待，大箠則走，以逃暴怒也。今子委身以待暴怒，立體而不去，殺身以陷父，不義不孝，孰是大乎。汝非天子之民邪，殺天子之民，罪奚如。以曾子之材，又居孔子之門，有罪不自知，處義難乎。”〔程榮 校刻，『漢魏叢書』(台北：新興書局，中華民國五十九年)，879 쪽〕

3) 『禮記』「檀弓下」，“季武子寢疾 … 及其喪也，曾點倚其門而歌。” 이것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를 조롱하는 曾點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4) 曾皙의 이름은 點이다. 『史記』「仲尼弟子列傳」에서는 曾葢으로 나온다. 아들인 曾參(前505-前435, 字는 子輿, 孔子보다 46세 年下) 卽 曾子와 함께 孔子를 스승으로 섬겼다. 皙은 그의 字이다.

II. 주자와 왕양명의 증점에 대한 평가

본 장에서는 송명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南宋의 朱子(1130-1200)와 明代의 王陽明(1472-1529)이 증점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자는 『논어』의 해당 부분의 주석에서 증점의 사상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증점의 학문은 대체로 사람의 욕심(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가 유행하여, 곳에 따라 충만하여 조금도 모자라거나 빠진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을 때에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이와 같았으며, 그 뜻을 말한 것은 현재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자신을 버리고서 남을 위하여는 뜻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 가슴 속이 한가롭고 자연스러워 곧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위 아래로 함께 흘러 각각 제 위치를 얻은 그 오묘함이 은근히 말 밖에 나타났으니, 저 세 사람이 지엽적인 정치적 과업에 급급한 것에 비하면 그 기상이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감탄하시고 깊이 동의하신 것이며, 문인도 그 전말을 특히 더욱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역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⁵⁾

이와 같이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증점이 도달한 경지와 그가 보여준 기상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증점과 관련된 二程(程明道·程伊川)의 세 가지 평가를 위의 주석 다음에 인용하여 자신의 평가를 뒷받침

5) 『論語集註』「先進」, 11:25 朱註,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 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視三子之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 故夫子歎息而深許之. 而門人記其本末獨加詳焉, 蓋亦有以識此矣.”

하도록 하였다.

(명도 선생은) 또한 “공자께서 ‘증점을 허여한다’라고 하신 것은 성인의 뜻과 같기 때문이니, 그것은 바로 요순의 기상이다.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뜻과는 참으로 다르다. 다만 말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른바 ‘狂’이라는 것이다. 자로 등 세 사람의 소견은 확실히 작았다. 자로는 다만 나라를 예로써 다스리는 것이 도리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웃으신 것이니, 만약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도 바로 그러한(요순의) 기상인 것이다”⁶⁾라고 말씀하셨다. 또 (명도 선생은) “세 사람은 모두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이다. 증점은 ‘광자’이니, 반드시 성인의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자의 뜻을 알 수는 있었다. 그러므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쐬며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니, 즐겁게 자신이 있을 곳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공자의 뜻은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봉우 간에 미덥게 해주며, 어린이를 감싸주어,⁷⁾ 만물이 그 본성을 다 이루지 않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증점이 그것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크게 감탄하시며 “나는 증점을 허여 하리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⁸⁾라고 말씀하셨다. 또 (명도 선생은) “증점과 칠조개는 이미 큰 뜻을 보았다”⁹⁾라고 말씀하셨다.¹⁰⁾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은 ‘狂’ 또는 ‘狂者’이

6) 『程氏遺書』 12:8.

7) 『論語』 「公治長」 제25장,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8) 『程氏外書』 3:27. * 『朱子語類』 40:38에서 明道の 말로 나온다.

9) 『程氏遺書』 6:104. * 『朱子語類』 28:25에서는 明道の 말로 나오는데, 伊川の 말이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龐万里, 『二程哲學體系』(北京: 北京航空航大大學出版社, 1992), 395쪽 참조).

10) 『論語集註』 「先進」 11:25 朱註, “又曰, 孔子與點, 蓋與聖人之志同, 便是堯舜氣象也. 誠異三子者之撰, 特行有不掩焉耳, 此所謂狂也. 子路等所見者小, 子路只爲不達爲國以禮道理, 是以哂之. 若達, 卻便是這氣象也. 又曰, 三子皆欲得國而治之, 故夫子不取. 曾點, 狂者也, 未必能爲聖人之事, 而能知夫子之志. 故曰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言樂而得其所也. 孔子之志, 在於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使萬物莫不遂其性. 曾點知之, 故孔子喟然歎曰, 吾與點也. 又曰, 曾點漆離開, 已見大意.”

며, 〈에피소드 2〉와 〈에피소드 3〉은 바로 이 개념과 연계되어 읽혀진다. 이제 이상의 『논어집주』의 주석 속에서 증점의 사상적 특징과 인간적 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¹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人欲盡處，天理流行
- 其言志，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樂其日用之常，初無舍己爲人之意¹²⁾
- 其胸次悠然，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 孔子與點，蓋與聖人之志同，便是堯舜氣象也¹³⁾
- 特行有不掩焉耳，此所謂狂也
- 曾點，狂者也，未必能爲聖人之事，而能知夫子之志
- 已見大意

이러한 표현의 의미를 요약하면, 증점은 성인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그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이며, 공자가 허여한 까닭도 바로 그 정확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주자의 해석이다. 이러한 주자의 관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그것인데, 부정적 평가를 대표하는

11) 이것은 주 12), 주 13)에서 강조한 표현들과 함께 조선 유학자들이 증점과 관련된 글을 지을 때 전형적으로 활용하는 표현들이다.

12) 『朱子語類』 31:68, “問顏子樂處。曰，顏子之樂，亦如**曾點之樂**。但孔子只說顏子是恁地樂，曾點卻說許多樂底事來。點之樂，淺近而易見。顏子之樂，深微而難知。點只是見得如此，顏子是工夫到那裏了。從本原上看，方得。” 참조. * 일러두기 : 板本에 관계없이 『朱子語類』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인용할 때는 권수와 항목 순서를 표기해 두었다. 이를테면 『朱子語類』 31:68은 卷31의 68번째 대화를 뜻한다. 『論語集註』, 『孟子集註』, 『二程集』도 이러한 기준을 따랐다.

13) 『朱子語類』 40:44, “或問曾點氣象。曰，曾點氣象，固是從容灑落。然須見得他因甚得如此，始得。若見得此意，自然見得他做得堯舜事業處。” 및 『朱子語類』 27:58, “看其意，有**鳳凰翔于千仞底氣象**。” 참조.

표현이 바로 ‘狂’이다. 요컨대 ‘광’은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인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자는 “(증점이) 실제로는 세밀한 공부가 많이 결여되어 있기에 장자나 열자와 비슷하다. 예컨대 계무자가 죽었을 때 그 문에 기대어서 노래하고, 증삼을 때려서 땅에 넘어뜨린 것과 같은 일은 모두가 지나치고 괴이한(狂怪)한 것이다”¹⁴⁾라고 말하여, ‘광’에 내포된 일탈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긍정적 평가는 ‘狂’을 제외한 나머지 주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자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긍정적 평가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송대에 비교적 영향이 컸던 江西學派(육구연의 학파)에서 ‘증점의 기상’만을 말하기 좋아하고 ‘敬을 위주로 하는’ 엄숙한 자기단속적 공부를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했다.”¹⁵⁾ 이러한 주자의 해석과 평가는 이후 주자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기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¹⁶⁾

그런데 明代의 王陽明은 주자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성인께서는 어찌면 그토록 관대하고 포용성 있는 기상을 지니고 계셨던가! 게다가 스승된 사람이 여러 제자들에게 품은 뜻을 묻자, 세 제자는 모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대답했으나, 증점의 경우는 초연히 그 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비파를 타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거리낌 없이 자유분방한 태도(狂態)인가! 품은 뜻을 말할 때도 스승이 제기한 구체적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으니, 모두 거리낌 없이 자유분방한 말(狂言)이었다. 만약 정이천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를 질책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기상인가!¹⁷⁾

14) 『朱子語類』 40:15, “其實細密工夫卻多欠闕, 便似莊列. 如季武子死, 倚其門而歌, 打曾參仆地, 皆有些狂怪.”

15) 陳來(진병욱 옮김), 『양명철학』(예문서원, 2003), 439쪽.

16) 曾點에 대한 朱子の 견해는 『四書章句集註』와 『朱子語類』뿐만 아니라 『朱子大全』에 수록된 다수의 편지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7) 『王文成公全書』 卷3 「語錄3, 『傳習錄下』, “聖人何等寬洪包含氣象. 且爲師者問志於羣

이와 같이 왕양명은 증점이 보여준 광자의 경지와 그러한 증점을 허용한 공자의 기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¹⁸⁾ 증점에 대한 왕양명의 높은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세 사람(자로, 염유, 공서화)은 의도와 기필함을 가지고 있었다. 의도와 기필이 있으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니,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증점의 그러한 생각은 도리어 의도와 기필이 없으니, 곧 “현재의 형편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적에 처해서는 이적에 알맞도록 행하고, 환난에 처해서는 환난에 알맞도록 행하여 어디를 가든 자득하지 않음이 없다”¹⁹⁾는 것이다. 세 사람은 (공자의) 이른바 “너는 그릇이다”²⁰⁾에 해당하며, 증점에게는 곧 “그릇이 아니다”²¹⁾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²²⁾

요컨대, 왕양명은 증점을 중용의 덕을 갖춘 군자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왕양명의 증점 해석은 유학사를 통해 볼 때 증점에 대한 최상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증점에 대한 주자와 왕양명의 해석 차이를 그들의 학문과 사상의 기본 특징을 고려하여 정리한다면, “戒愼과 敬畏를 강조하는 정주학에서는 증점의 광자의 기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和樂과 灑落의 정신

弟子，三子皆整頓以對。至於曾點，飄飄然不看那三子在眼，自去鼓起瑟來，何等狂態。及至言志，又不對師之問目，都是狂言。設在伊川，或斥罵起來了。聖人乃復稱許他，何等氣象。”

18) 陳來(전병욱 옮김), 『양명철학』(예문서원, 2003), 제9장 <3. 광자의 흥차> 참조.

19) 『中庸』 제14장 참조.

20) 『論語』 「公治長」, 제3장 참조.

21) 『論語』 「爲政」, 제12장 참조.

22) 『王文成公全書』 卷1 「語錄1」, 『傳習錄上』, “三子是有意必，有意必便偏着一邊，能此未必能彼。曾點這意思却無意必，便是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素夷狄行乎夷狄，素患難行乎患難，無入而不自得矣。三子所謂汝器也，曾點便有不器意。”

경계를 중시하는 양명학에서는 증점의 기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²³⁾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해석과 평가를 종합한다면, 증점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비교적 복합적이고 미묘한 정신세계를 가진 독특한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²⁵⁾

Ⅲ.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조선의 유학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유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유학에서 특정 주제와 경향이 관심거리가 될 경우 대체로 조선유학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증점과 관련된 경우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제 본 장에

23) 王陽明(정인재·한정길 역주), 『傳習錄 1』(청계, 2004), 154쪽 〈해설〉.

24) 그렇다면 주자와 왕양명은 문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중문학계에서는 “왕양명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주자학을 비판하였지만 문학에 있어서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였다. 그것은 육상산이 정주이학을 반대하면서도 문학관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였다. [박석, 『송대의 신유학자들은 문학을 어떻게 보았는가』(역락, 2005), 234쪽 註 53) 참조] 또한 기본적으로 “신유학자의 문학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문학 외적 요소인 의리나 도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보아 문학의 건전한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중문학계의 평가이다. [박석, 같은 책, 223쪽 참조]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주자와 왕양명의 경우에 증점과 관련된 일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주자의 경우에 편지 등을 통해서는 증점과 관련된 많은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문학 방면으로는 「曾點」이라는 제목의 抒情的인 시 이외에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2 「曾點」, “春服初成麗景遲, 步隨流水玩晴漪. 微吟緩節歸來晚, 一任輕風拂面吹” 참조]

25) 증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종진, 「증점의 사상적 좌표에 대한 검토 - 朱子の 觀點을 중심으로 -」,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서는 조선의 유학을 주자학과 비주자학 계열로 나누어서 그 계열의 유학자들이 각기 증점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그들의 문학작품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주자학은 조선의 체제유지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조선시대 내내 유지하였다. 이러한 주자학의 시대 속에서 그 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조선의 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은 증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였을까? 여기서는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 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학을 조선의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三峯 鄭道傳(1337-1398)인데, 그는 景濂亭²⁶⁾이라는 정자와 관련된 글에서 증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黃魯直²⁷⁾은 “周茂叔의 마음이 상쾌하고 깨끗하여[灑落] 비가 갠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光風霽月]처럼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어디에도 얽매지 않는 인품을 가졌다”고 말했으며, 程子是 “주무숙을 만난 뒤로는 늘 仲尼와 顏子가 즐거워한 것과 즐거워하도록 한 것이 무슨 일인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부터 風月을 읊으며 돌아오면서 ‘나는 會點을 허여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건대, 주렴계를 경양하는 방법이

26) 고려 말기의 문신인 景濂亭 卓光茂(생몰연대 미상)와 관련된 정자이며, 光州에 있다. 경림정이란 亭號는 周濂溪 즉 周敦頤(1017-1073)를 景仰하고 기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益齋 李齊賢(1287-1367)이 붙여 준 것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홈페이지 내 <광주의 역사> 참조]

27) 黃庭堅(1045-1105)은 中國의 畫家이자 書藝家이다. 字는 魯直, 號는 山谷道人·涪翁이다. 蘇東坡의 門下에서 배웠고, 그의 文人畫派에 속했다. 특히 자유분방한 草書體로 유명하다.

있으니, 모름지기 쇠락한 기상을 알아야만 하고, ‘증점을 허여한다’는 뜻을 가진 후에야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이 글을 통해 볼 때 정도전은 증점이 도달한 경지가 바로 주렴계의 쇠락한 기상과 통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주렴계의 그러한 기상은 바로 요순의 기상으로 해석되는 증점의 기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점에 대한 정도전의 평가는 증점에 대한 긍정적인 주자학적 해석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주자학)은 조선시대 중기의 유학자인 退溪 李滉(1501-1570)에 이르러 마침내 주체적인 사유 체계를 정립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이황의 학문적 영향력은 그의 문인들이 嶺南學派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 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황 역시 증점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황은 그의 문인인 文峯 鄭惟一(1533-1576)의 질문²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했다.

‘勿忘勿助’와 ‘鳶飛魚躍’을 논하여 비유를 취하는 의미로 여겼는데, 다만 自然無爲의 氣象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옛사람들이 이를 논한 여러 설명을 살펴보면, 이것은 비유를 취해서 그 기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을 들어서 道體가 자연히 발현하여 유행하는 실상을 보인 것이다. ‘물망물조’ 같은 것은 도가 나에게 있어서 자연히 발현하여 유행하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언비어약’은 도가 사물에 있어서 자연히 발현하여 유행하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일 ‘浴沂詠歸’를 인용

28) 鄭道傳, 『三峯集』 卷4 「景濂亭銘後說」, “黃魯直曰, 周茂叔胸中灑落, 如光風霽月. 程子曰, 自見周茂叔, 每令尋仲尼顏子樂處所樂何事. 自是吟風咏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道傳私竊以爲, 景濂有道, 須要識得灑落氣象, 有與點之意, 然後可以言至.”

29) 鄭惟一, 『文峯先生文集』 卷3 「書」 「上退溪先生問目」, “所謂勿忘勿助, 有鳶飛魚躍底氣象者. 勿忘勿助, 是天理之當然, 不容一毫安排布置, 如鳶飛魚躍, 是天理之自然發見, 不待有意於飛躍而自然飛躍也, 取譬之意. 但取其自然無爲之氣象矣. 不知如何.” 참조.

하여 함께 말한다면, ‘육기영귀’는 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히 발현하여 유행하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을 따름인데, 어떠한가?³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증점이 도달한 경지를 이황이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황은 詩를 통해서도 증점의 기상과 즐거움(樂)을 표현하기도 하였다.³¹⁾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와 같이 증점과 관련된 철학적인 내용을 문학적인 형식 속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른바 ‘文以載道’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여기서 이황과 교분이 있었던 河西 金麟厚(1510-1560)의 시 「浴沂」를 한 사례로 삼아 감상하고자 한다.

공자님 제자가 삼천이지만, 그 중에 顏回가 근사했고
또 비파 잘 타는 曾點이 있어 꽃다운 늦봄을 만났네.
冠者와 童子들이 봄옷을 입고, 함께 가서 沂水에서 목욕을 하네.
봄물은 넘실넘실 흘러가는데, 봄날은 바야흐로 따뜻하여라.
개운히 먼지 때를 씻어 버리니, 만물도 때를 만나 빛이 나도다.
舞雩라 맑은 바람 가득 띄고서, 읊조리며 유유히 돌아오누나.
鳳凰은 천 길을 날아오르니, 그 기상 어찌 그리 드높더냐.
만고 세월 그 아래 흘러 섰으니, 聖人 아니시면 내 뉘를 의지하리.³²⁾

30)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25 「書」, 「答鄭子中別紙」, “所論勿忘勿助與鳶飛魚躍之義, 以爲取譬之意, 但取其自然無爲之氣象者, 善矣. 然觀古人論此諸說, 蓋非取譬以言其氣象, 乃因此而舉彼, 以見道體自然發見流行之實. 如勿忘勿助, 則道之在我而自然發見流行之實, 可見. 鳶飛魚躍, 則道之在物而自然發見流行之實, 可見. 又如引浴沂詠歸而並言, 則浴沂詠歸, 道之在日用而自然發見流行之實, 可見. 如是而已, 如何如何.”

3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詩들이다 : (1)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卷1 「詩」, 「浴沂橋」, “千載遙憐舍瑟人, 浴沂言契聖歎新. 只今退相追餘興, 風詠從容樂暮春.” (2)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3 「詩」, 「四時幽居好吟四首」, “春日幽居好, 輪蹄迥絕門. 園花露情性, 庭草妙乾坤. 漠漠栖霞洞, 迢迢傍水村. 須知詠歸樂, 不待浴沂存.”

32)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卷2 「五言古詩」, 「浴沂」, “孔氏弟三千, 顏回其庶幾. 又有點也瑟, 正爾春芳菲. 冠童服春服, 去去浴乎沂. 缺流正浩蕩, 春日方依微. 儻然滌塵垢, 萬物

김인후는 『논어』에서의 묘사와 주자의 해석을 적절히 융합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시의 형식 속에서 그 의미를 잘 표현했다. 이외에도 이황과 四端七情에 대한 論辯을 벌인 高峰 奇大升(1527-1572)도 시를 통해서 증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으며³³⁾, 또한 이황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사람인 鶴峰 金誠一(1538-1593)도 〈曾點捨瑟圖〉라는 그림을 소개로 삼은 시를 지어 증점이 도달한 경지를 표현하였다.³⁴⁾ 그런데 김성일은 증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의 끝 부분에서 ‘오직 한스러운 건 뜻만 크게 가진 것[獨恨嘍嘍行不掩]’이라고 묘사하여 증점이 가진 ‘狂’의 측면을 지적하였다.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는 栗谷 李珣(1536-1584)이다.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그의 문인들은 畿湖學派를 형성하여 영남학과와 함께 조선 유학계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이는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서 증점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표

生光輝。舞雩佇清風，朗詠翩然歸。鳳凰千仞翔，氣象何巍巍。獨立萬古下，微聖吾誰依。”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홈페이지 내 〈한국고전종합DB〉에 번역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였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부 번역문을 수정한 경우도 있다.

33) 奇大升, 『高峰續集』 卷1 「詩」, 「點瑟天機鳴」, “老安少懷夫子志, 四海遑遑還否亨。當時侍坐偶四子, 仲由曾點求赤并。從容問酬俾無隱, 展才治國多嬰情。中有一人獨鼓瑟, 胸次灑落金天晶。天機動處沕相諧, 豈有不便然後鳴。洋洋萬物與同流, 意思妙絕詔與經。鏗然而舍吐所懷, 想見沂上春風清。聖師喟然歎且(缺), 規規三子徒自驚。堪嗟此聲久埋沒, 回視百代誰能賡。” 참조.

34) 金誠一, 『鶴峯逸稿』 卷1 「詩」, 「曾點捨瑟圖」, “吾觀達人見已大, 所懷不與人同趨。動靜端可見氣像, 此心所向元非誣。鏗爾捨瑟彼何人, 點也一對凡人殊。聖門當日得依歸, 氣度迥出三千徒。面承提挈日薰炙, 浩浩方寸無蔽拘。絃歌一夕侍函丈, 天機鳴處春和敷。無邊至樂付絃上, 融融一理胸中俱。心遊太極復何爲, 襟期灑落水生壺。當筵忽承各言志, 數子所對多疏迂。夫人所抱固異撰, 肯與彼志同區區。悠然捨瑟展所蘊, 見道已明寧外須。雍容儀度合中和, 志願唯在風舞雩。素位之樂豈有窮, 人欲淨盡絲毫無。同流天地順元和, 四海萬物無彼吾。氣像堯舜與同伴, 恰似鳳凰翔雲衢。聖門興喟嗟與, 言志一一欣相符。視彼三子各慕外, 規規利名胡爲乎。遺風曾想魯論中, 誰教龍眠重作圖。千載如聆鏗爾聲, 敬之不覺僂余軀。獨恨嘍嘍行不掩, 撫圖此日成長吁。” 참조.

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문집의 일반적인 편집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그의 저술을 집성한 『栗谷全書』에는 「浴沂辭」라는 일종의 ‘哲學詩’가 제일 먼저 수록되어 있다.

봄바람은 솔솔 불고 봄날은 길고 길다.
 봄옷 이미 마련되었으니, 나의 벗들과 함께 놀러 가리라.
 저 沂水 보이니 맑은 물에 목욕하리라.
 나의 옷 털어 입고 나의 갓 털어 쓰고서
 舞雩에서 바람 쐬리라.
 만물의 변화 헤아려 보고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하나의 근본 이치를 깨닫고서 만 갈래의 다름에 통하였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니, 물고기는 뛰어 오르고 솔개는 나는구나.
 堯舜은 이미 가버렸으니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나.
 즐겁도다 저 杏壇, 나의 스승으로 모시리라.³⁵⁾

이 시를 통해서 이이는 먼저 자연 속에서 悠悠自適하면서 천리를 헤아려 본 증점의 경지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학을 지향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증점에 대한 이이의 긍정적인 평가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양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친화적인 증점의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마음의 본체는 洞徹하고 虛靈하나 사물에 拘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잘 수양하면 통하고 잘 수양하지 못하면 막힌다. 통하면 物物을 자유로이 하여 그 처리가 이치에 합당하고 막히면 사물이 사물을 끌어들여 그 처리가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 잘 수양하는 방법은 마음을 操存하고 省察하

35) 李珣, 『栗谷全書』 卷1 「浴沂辭」, “春風兮習習, 春日兮遲遲. 我服既成兮我友同遊, 瞻彼沂水兮浴乎清漪. 振余衣兮彈余冠, 風一陣兮於舞雩. 觀物化兮詠而歸, 達一本兮通萬殊. 仰天兮俯地, 魚躍兮鳶飛. 勳華已逝兮吾誰與歸, 樂彼杏壇兮爰得我師.”

는 데 있으나, 거처하는 환경이 淸曠한 것도 수양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옛적에 증석이 '沂水에 목욕한 뒤 吟詠하고 돌아오겠다'하자 夫子가 깊이 許與하였고, 朱子は 한 그루 나무의 맑은 그늘을 만나면 으레 읊조리고 배회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다만 外境만을 즐겼을 뿐이겠는가. 장차 外境으로써 내 마음의 수양을 도우려는 것이다.³⁶⁾

둘째는 「浴沂辭」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天理에 대한 洞察과 관련된 것이다.

옛적에 증석이 沂水에 목욕하겠다고 하자 夫子가 감탄하며 깊이 許與하였는데, 이는 증석이 人欲이 없는 곳에 天理가 流行하는 妙理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城南의 목욕과 壇上의 읊음은 魯나라 사람이면 다 같이 하는 일인데, 어찌 날날이 다 허여하겠는가. 그러나 天理의 玄妙는 배우는 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리의 현묘를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慎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독에 입각하면 내 마음에 간격이 없고 내 마음에 간격이 없으면 천리가 유행한다.³⁷⁾

특히 이이가 '천리의 현묘'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慎獨'을 강조한 것이 돋보인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이는 「自警文」에서 “홀로 있을 때에 삼가 한 뒤라야 ‘기수에서 목욕하고 읊조리며 돌아온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³⁸⁾라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

36) 李珣, 『栗谷全書』 卷13 「平遠堂記」, “蓋心之本體, 洞徹虛靈, 而不能不爲物所蔽, 善養則通, 不善養則窒. 通則能物物而處當乎理, 窒則物引物而處不當理, 善養之法, 固在操存省察, 而居處淸曠, 亦助養之具也. 昔者, 曾皙浴沂詠歸, 而夫子深與焉, 朱子遇一樹淸陰處, 必嘯詠徘徊而不能去, 此徒外境之爲樂哉, 將以外境助養吾心爾.”

37) 李珣, 『栗谷全書』 卷13 「松崖記」, “昔者, 曾皙有浴沂之談, 夫子嘆息而深許之, 以皙也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之妙故也. 不然則城南之浴, 壇上之詠, 魯人之所同也, 烏可一一與之乎. 雖然, 天理之妙, 非學者所可易言也. 欲見天理之妙, 當自慎獨始, 慎乎獨, 則吾心無間, 吾心無間, 則天理流行矣.”

38) 李珣, 『栗谷全書』 卷14 「自警文」, “謹獨然後, 可知浴沂詠歸之意味.”

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이이는 증점을 수양의 높은 경지에 다다른 유학자로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한편으로 이이는 증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공자 문하의 제자와 정자·주자 문하의 제자 중에 근본 기틀이 온전하지 못하고 깊지 못한 이들은 모두 한쪽 편만을 바라본 이들입니다. 증점은 전체를 바라보고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狂'에 그쳤던 사람입니다. 증점의 학문은 人欲이 없어진 곳에 天理가 유행해서 처소에 따라 충만하여 흠결됨이 없음을 보았으니, 그 흥중의 즐거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까. 제자들이 한갓 한쪽 편만 보고 일의 말단에만 얽매어 조심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어찌 손뼉 치며 大笑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그는 여기에만 즐거워하였을 뿐이요, 일찍이 머리를 숙이고 산에 오르는 공부가 없어서 자기 몸을 단속하는 행실은 도리어 제자들의 謹飭하는 것만도 못하였으니, 보았던 물건이 어찌 자기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顏子·曾子·子思·孟子·周子·張子·程子·朱子 같은 이들은 바라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몸소 그 지경을 밟았습니다.³⁹⁾

이이가 지적한 증점의 한계는, 이미 맹자 이래로 증점을 규정하는 개념 중 하나인 '狂'과 관련된 것이다.⁴⁰⁾ 즉 이이 역시 실천과 관련하여 증점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다.

조선 유학자 중에서 정도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카리스마를 보여준 인물이라면 尤庵 宋時烈(1607-1689)을 먼저 지목할 수 있다. 기

39) 李珣, 『栗谷全書』 卷10 「答成浩原」, “若孔門弟子, 及程朱門下之根柢不全不深者, 皆望見一面者也. 曾點則望見全體, 而以是爲樂, 不求上山, 故終於狂者而已也. 曾點之學, 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所欠缺, 其胸中之樂, 爲如何哉. 俯視諸子, 徒見一面, 規規於事爲之末, 豈不撫掌大笑乎. 雖然, 樂於此而已, 曾無俛首上山之功, 其檢束之行, 反不若諸子之謹飭矣. 所見之物, 安得爲己物乎. 若顏曾思孟周張程朱, 則不止於望見, 而親履其境者也.”

40) 『孟子集註』 「盡心下」, 7B:37, “如琴張曾皙牧皮者, 孔子之所謂狂矣.” 참조.

호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은 그 어떤 유학자보다도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하는 열망이 큰 인물이었다.⁴¹⁾ 그러한 송시열이 증점과 관련해서는 “증점은 바로 광자이니 어찌 요순과 같으리오. 마음속에 쌓인 것 있다면 무우의 바람에 부끄러우리라”⁴²⁾는 시를 남겼다. 송시열은 증점에게 내재되어 있는 ‘狂’의 측면을 지적하여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天理流行’, ‘曾點之樂’, ‘堯舜氣象’ 등을 거론하면서 증점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주자학 계열 조선 유학자들과는 관점을 달리한 것이다. 이것은 주자가 증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만을 송시열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송시열의 관점이 이후 기호학파에 그대로 수용된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송시열의 문인인 遁翁 韓汝愈(1642-1709)는 그의 論說 「曾點臨喪而歌」에서 증점의 지나친 행실을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는 ‘상가의 문에 기대어 노래했다’는 『예기』의 기록에 대해서 ‘漢代의 유학자들이 장자의 말을 전해 듣고 건강부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서 『예기』 자체가 일부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서 한대의 유학자들이 건강부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서, ‘증점은 천리의 전체대용을 보았다’고 강력하게 옹호하였다.⁴³⁾ 또한 宋時烈의 再傳弟子인 南塘 韓元震(1682-1751)

41) 『朱子大全節疑』, 『朱子語類小分』 등의 주해서는 주자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42) 宋時烈, 『宋子大全』 卷2 「詩」, 「靈芝洞八詠」, “點也是狂者, 如何堯舜同. 心中如有累, 慙愧舞雩風.” 右浴沂壇 * 송시열과는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였던 孤山 尹善道(1587-1671)는 증점의 기상과 요순의 기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曾點有堯舜氣象論」이라는 글을 남겼다. [『孤山遺稿』 卷6 上 「別集」 참조]

43) 韓汝愈, 『遁翁先生文集』 卷7 「論」, 「曾點臨喪而歌」, “檀弓所稱, 季武子死, 曾皙倚其門而歌者, 是特漢儒傳聞之誤而傳會之言也. 烏足信乎. … 然則曾點之歌, 亦必漢儒不明理, 傳聞莊子之說而傳會者也. … 蓋亦有以識曾點之獨見天理之全體大用也. … 況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傳會者乎.” 참조.

은 “증점이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은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자신만 착하게 살려는 데 있지 않으니, 성현의 본심을 여기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⁴⁴⁾고 서술하여, 증점이 개인의 수양과 사회의 개혁을 함께 지향하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독해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증점을 성현의 경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조선시대 비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의 주류 학문은 주자학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자학과는 다른 진리를 추구하려는 유학자들도 존재하였다. 그와 관련된 주요한 흐름은 조선시대 중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양명학과 비주자학적 경학 해석 그룹, 그리고 실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비주자학 계열 유학자들의 증점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谿谷 張維(1587-1638)는 주자학에 치우친 조선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양명학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그는 『谿谷漫筆』의 한 조항에서 “陽明의 시 가운데, 가령 … ‘봄바람 속에 땡그렁 하며 비파 내려 놓으니, 曾點은 비록 狂者라도 나의 심정을 얻었도다’⁴⁵⁾ … 등의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 선비들이 비난을 가하며, 지나치게 높기만 하고 禪 냄새가 풍긴다고 말들을 하였다. 그러나 워낙 造詣가 超絶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야 어찌 하겠는가”⁴⁶⁾라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양명학에 경

44) 한원진(곽신환 역주), 『朱子言論同異攷』(소명출판, 2002), 198쪽. * 原文 : “曾點言志亦有兼善之意, 而不在於獨善, 聖賢本心此益可見矣.”

45) 王守仁, 『王文成公全集』卷20 外集2 『月夜二首, 참조.

46) 張維, 『谿谷漫筆』卷1, “陽明詩有曰, … 鏗然舍瑟春風裏, 點也雖狂得我情. … 此等語皆諸儒所詆, 以爲過高近禪者. 然自超詣動人.”

도된 그의 심경을 드러내 보이는 동시에 증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뜻을 내포한 글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유가 무비판적으로 왕양명을 추종한 것은 아니다.

왕양명의 학문은 (그 사상의 기본 틀이) 본래 陸九淵에게서 나왔으나, 그가 내세운 이론은 때때로 조금씩 (육구연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인품이나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육구연이 왕양명 보다 차원이 높은 듯하다.⁴⁷⁾

장유는 이와 같이 육구연과 왕양명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인격적인 면에서는 육구연을 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장유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 暹川 崔鳴吉(1586-1647)도 양명학에 관심을 가진 조선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한 마디 말로 오랜 세월동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유림을 고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을 대담한 증점의 말 뿐이다’라는 표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를 보인 증점을 격찬하였는데, 대체로 주자학자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다.⁴⁸⁾

조선시대 중후기에 이르면 朱子學의 一尊主義에 반발하여 주자학적 유교 경전 해석을 비판하고 독창적인 유교경전 해석을 통해서 유학의 본래성을 찾고자 하는 학문 경향이 등장하였다. 그 중의 한 사람인 西溪 朴世堂

47) 張維, 『谿谷漫筆』 卷1, “王氏之學, 本出於象山, 然其立論, 時有少異. 若人品實踐則陸似高於王.”

48) 崔鳴吉, 『暹川先生集』 卷17 「雜著, 「舞雩亭記(癸未)」, “有一言而可以驚動千古, 鼓舞儒林者. 曾點言志之對是已. 蓋聖門之教, 不越乎修己治人之道, 則浴沂風雩, 特一閑人事耳, 宜若無取焉, 而夫子喟然之嘆, 獨發於曾點. 至宋二程先生師事濂溪周先生, 函丈授受之間, 又有默契於斯焉者. 故其言曰, 再見周茂叔, 吟風弄月而歸, 有吾與點之意. 則吾夫子家風, 亦自有超然於日用事爲之外者哉. 曾點死已二千餘年, 而魯之距東國又萬餘, 則其地與其人皆不可得以見. 得其名之偶同者而寓吾意, 因是而想其人而慕其志, 則亦庶幾焉.” 참조.

(1629-1703)은 유학이 본래 현실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상 체계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思辨錄』을 통해 주자의 『四書集註』를 비판하였다.⁴⁹⁾ 그렇다고 그가 무조건적인 반주자학의 입장을 표방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증점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

증점의 뜻이 超然하여, 속된 업매임이 없고 홀로 세상 밖에 서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현재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자신을 버리고서 남을 위하여는 뜻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 가슴 속이 한가롭고 자연스러워 곧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위 아래로 함께 흘러 간다'라고 하였으니, 잘 말하였다고 이르겠다. 정자는 '증점과 칠조개는 이미 큰 뜻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역시 그들이 밖[外]은 가볍게 여기고 안[內]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면서도 박세당은 "증점이 사람과 더불어 같이함을 즐거워하고, 또 구하려는 것이 밖에 있지 않으니, 말라빠진 선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자가 '증점을 허여하노라'고 한 것이다"⁵¹⁾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속되고 고루한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영남학파 중에서도 근기남인 계열에 속하는 실학자인 星湖 李瀼(1681-1763)은 특히 실천지향적인 경세사상에 관심을 두었다.⁵²⁾ 이러한 그의

4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예문서원, 1995), 194쪽 참조.

50) 朴世堂, 『思辨錄』, 『論語』(戊辰先生六十歲)「先進」, “曾點之志, 超然不累, 獨立物表, 而能盡人生之樂, 非三子所可及. 朱子言即其所居, 樂其日用, 初無舍己從人之意, 而胸次悠然, 與天地萬物上下同流, 可謂善乎言矣. 程子謂曾點漆雕開已見大意, 亦以其外輕而內重也.”

51) 朴世堂, 『思辨錄』, 『論語』(戊辰先生六十歲)「先進」, “曾點樂與人同而所求又不在外, 所以異於枯槁之士, 而夫子與之也.”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예문서원, 1995), 181쪽 참조.

학문적인 입장은 증점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이익은 공자의 물음에 대한 증점의 대답을 분석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증점은) 다만 그의 뜻을 말한 것뿐이고 부자의 물음에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는데, 부자가 극도로 칭찬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그 대답한 뜻을 자세히 생각하니, 모두 착한 정치가 이루어진 후에 온갖 생물이 다 제대로 살 바를 얻어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그 삶을 즐긴다는 말이었다. 만약 그 당시에 부자를 알아 준 임금이 있어서 정사를 맡겨 주었다면 반드시 태평한 시대를 만들어 친하 사람으로 하여금 어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대자연의 조화 속에서 제대로 잘 살도록 했을 것이니, 증점이 기약한 바도 이와 같음에 불과했던 것이다.⁵³⁾

이것은 한편으로는 平天下를 희구하는 師弟의 經世意識과 함께 공자가 그러한 이상을 실천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강조한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聖인이 그의 대답을 장하게 여겨 탄식하였으나, 이 탄식은 증점의 말만을 탄식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道를 행할 수 없음을 탄식한 것이다”⁵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여기서 이익은 특히 경세의 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증점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實學의 흐름을 종합한 茶山 丁若鏞(1762-1836)은 『論語古今註』에서 “살펴보건대, 공자가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물었던 것이니, 세 사람이 대답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증점이 (세 사람의 말과) 다른 말을 한 것은 時運이 否塞한데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실효성 없는) 虛言임을 가리

53) 李瀼, 『星湖僊說』 第21卷 「經史門」, 〈曾點之對〉, “此特言志, 非對問也, 而夫子亟許, 何也. 商其意, 皆聖世治平之後, 物各得所, 歌詠而樂其生之語也. 若使當時有知夫子者, 出而授之以政, 則必將陶鑄熙皞, 使天下之人無長無少, 咸囿於大化之中, 優遊自得, 不知爲之者. 點之所期不過如此.”

54) 李瀼, 『星湖僊說』 第21卷 「經史門」, 〈曾點之對〉, “是以聖人喟然而歎, 斯歎也, 非歎點之言也, 歎世之不可有爲也.”

킨 것이다. 부를 구해서는 안 되는 (난세)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공자가 그를 칭찬한 것이고, 세 사람이 대답을 잘못된 것은 아니다”⁵⁶⁾라고 평했는데, 이것은 증점의 태도가 단순히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또 증점의 말은 세속에 더럽혀진 먼지와 때를 털고 씻으려 한 말”⁵⁷⁾이라고도 하였으니, 증점의 말에 修己의 뜻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論語古今註』 浴沂章에 대한 〈質疑〉 중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점에 대한 송대 유학자들의 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질의】 유화암 : 증점의 뜻은 다만 일개 狂者로서 세속의 진적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사상채(謝良佐)가 “세 사람 가운데 증석만 홀로 동풍을 쬐고 운운하는 대답을 하여 차가운 눈으로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宋儒들은 말의 장황함이 지나칠 정도여서 드디어 “그는 천지와 동류이다”라 하고, “그는 요순의 기상이다”라 하며, “그는 인욕을 깨닫지 못했어”라 하였다. 그런데 대저 ‘천지와 동류이다’ ‘요순의 기상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공자의 ‘老安少懷’⁵⁸⁾하는 것과 같아야 바야흐로 이 경지에 오며, 暮春의 놀이 같은 이것은 吟風弄月로써 스스로 자적하는 데에 불과하다. 사욕을 깨닫지 못했어는 것은 반드시 顏回의 ‘無伐無施’⁵⁹⁾하는 것과 같아야 바야흐로 이 경지에 오는데, 증점은 일시적으로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

55) 『論語』 「述而」 편에 나오는 말이다.

56) 丁若鏞, 『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卷5 「先進下」, “案孔子本問爲邦之事, 三子非失對也. 曾點爲異論者, 謂時運否塞, 三子之言, 皆虛言也. 富不可求, 從吾所好, 故孔子善之, 三子非失對也.” * 『論語古今註』의 번역문은 기본적으로 이지형이 譯註한 『譯註 論語古今註』(사암, 2010)를 활용하였다.

57) 丁若鏞, 『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卷5 「先進下」, “且曾點之言, 脫洒塵白.”

58) 『論語』 「公治長」 편에 나오는 “老者安之, 少者懷之”를 말한다.

59) 『論語』 「公治長」 편에 나오는 “願無伐善, 無施勞”를 말한다.

있음을 얻었다고 하여 어떻게 드디어 '일일극기'⁶⁰⁾의 경지에 도달하였겠는가? 송유들은 공자가 (증점을) 한 번 허여한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鼓瑟' 세 句⁶¹⁾를 가지고 그 동정을 모두 좋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승과 벗들이 바야흐로 뜻을 말하고 있는 자리임을 알지 못하고 비파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이는 狂者의 태도이다.⁶²⁾

증점이 보여준 脫俗的인 狂者의 측면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평가는 반주자학적이고 따라서 비관념적인 그의 실학사상 경향이 일정 부분 投影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공자의 제자이자 증자의 아버지인 증점은 남겨진 기록들에 근거할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물이다. 『論語』「先進」편 〈浴沂章〉에 실린 답변 내용만으로도 그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 이후 많은 유학자들은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 관점에서 증점을 평가하였으며, 그러한 평가를 종합한 주자의 경우에는 증점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狂'과 연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주자와 사상

60) 『論語』「顏淵」편에 나오는 “一日克己復禮”를 말한다.

61) “鼓瑟希，鏗爾，舍瑟而作”이란 句節을 가리키는 말이다.

62) 丁若鏞, 『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卷5「先進下」, “質疑 劉華崑云, 曾點之志, 只是個狂者, 不羈絆于塵跡. 故謝上蔡謂三子爲曾皙獨對東風, 冷眼看破, 乃宋儒張皇之過, 遂謂其天地同流, 謂其堯舜氣象, 謂其人欲淨盡. 夫天地堯舜, 必如夫子之老安少懷, 方是. 若莫春之遊, 不過啜風弄月, 自適其適者也. 私欲淨盡, 必顏回之無伐無施, 方是. 曾點只是一時見得世事不必拘滯, 而豈遂到一日克己田地. 宋儒因夫子一與, 遂把鼓瑟三句, 動靜都看好了, 不知師友方言志而鼓瑟, 此狂態也.” * 劉華崑은 알려진 것이 없는 인물이다.

적 입장을 달리하는 왕양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狂’마저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조선시대의 유학이 중국의 송명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증점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아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증점과 관련된 『논어』의 기록을 소재로 하여 적지 않은 글을 남겼다. 많은 경우에 문학적인 방식으로, 특히 韻文의 형식으로 증점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긴 것을 보면 조선의 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증점이 보여준 예술적 낭만성⁶³⁾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증점에 대한 조선유학자들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역시 주자이다.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곧 주자학자였기에 증점에 관한 글을 지을 경우 주자가 사용한 표현을 많이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견해에 공감하고 동조하였다. 이 경우에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대부분 증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자의 입장을 선호하고 수용하였다. 반면에 증점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宋時烈 등 소수에 그쳤다. 또한 조선 유학계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지만 조선의 양명학자들의 경우에는 장유처럼 적극적으로 왕양명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최명길처럼 주자학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약용 등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증점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의 유학은 여전히 중국 유학의 강력한 자장권 안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한다면, 조선 유학의 사상적 특징 중 하나는 중국 유학과 共鳴 現象이라는 점을 증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63) 會點이 비파를 연주한 것이나 한 폭의 정갈한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의 답변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끝으로 한 가지 거론하고 싶은 점은, ‘증점의 기상’과 관련해서 그 기상을 ‘經世意識[일종의 공동체주의 지향 강조]’과 ‘樂世意識[일종의 개인주의 지향 강조]’으로 그 해석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 거론된 조선의 유학자 중에서 증점의 답변에 경세의식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은 실학자인 이익이었다. 증점의 사상적 정체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증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유학자이지만, 그렇다고 일부 비유가적인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낙세의식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증점의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조선유학자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적 낭만성과 자연친화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유학자들이 고요한 도덕세계와 더불어 생생한 감성세계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증점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싶다. 이 점에서 복합적이고도 독특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인 증점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奇大升, 『高峰續集』/金誠一, 『鶴峯逸稿』/金麟厚, 『河西先生全集』/朴世堂, 『思辨錄』/宋時烈, 『朱子大全』/尹善道, 『孤山遺稿』/李珥, 『栗谷全書』/李瀼, 『星湖僿說』/李滉, 『退溪先生文集』/張維, 『谿谷漫筆』/鄭道傳, 『三峯集』/丁若鏞, 『論語古今註』/鄭惟一, 『文峯先生文集』/崔鳴吉, 『遲川先生集』/韓汝愈, 『遁翁先生文集』/韓元震, 『朱子言論同異攷』

『禮記』/司馬遷, 『史記』/王守仁, 『王文成公全書』/王守仁, 『傳習錄』/劉向, 『說苑』/程顥·程頤, 『程氏外書』/程顥·程頤, 『程氏遺書』/朱熹, 『四書章句集註』/朱熹, 『朱子大全』/

朱熹, 『朱子語類』

정약용(이지형 譯註), 『譯註 論語古今註』, 사암, 2010.

한원진(곽신환 역주), 『朱子言論同異攷』, 소명출판, 2002.

박석, 『송대의 신유학자들은 문학을 어떻게 보았는가』, 역락, 200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王守仁(정인재·한정길 역주), 『傳習錄 1』, 청계, 2004.

龐万里, 『二程哲學體系』, 北京 : 北京航空航天大學出版社, 1992.

陳來(전병욱 옮김), 『양명철학』, 예문서원, 2003.

임종진, 「증점의 사상적 좌표에 대한 검토 - 朱子の 觀點을 중심으로 -」, 『退溪學
과 韓國文化』 제39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363-410쪽.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 홈페이지 내 〈광주의 역사〉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홈페이지 내 〈한국고전종합DB〉

中文摘要

曾点和朝鮮時代的儒學者們

林宗鎮

根据已有的記录，孔子的弟子，曾子的父親曾点是具有多面說法的人物。僅『論語』「先進」篇〈浴沂章〉里記載的答辯內容就暗含了那些不同的側面。因此宋代以後很多儒學者以此爲主題多角度地對曾点進行了評價。總的來說，朱子對曾点做了肯定評價的同時，又因其‘狂’，而下了否定的評價。但不同於朱子思想立場的王陽明就連對‘狂’也做出了肯定的解釋。

許多朝鮮的儒學者以『論語』中和曾点有關的記录爲素材，寫下了不少的文章，其中留下的主要是文學形式的文章。還有從思想側面來看，朝鮮儒學者們對曾点進行評價時主要是受到了朱子的影響。例如，退溪李滉，栗谷李珣等朝鮮的許多儒學者都與朱子關於曾点的見解同出一轍。因此朝鮮的朱子學者們大部分對曾点進行了肯定的評價，但同時哪怕只擁有一點兒否定評價立場的少數人也是存在的。還有從朝鮮儒學界整體來看，像張維等極少數的朝鮮陽明學者們總是積極地支持王陽明的見解，但像丁若鏞等實學者們也提出了與曾点有關的一些批判性的觀點。

关键词

曾点，朱子，王陽明，朝鮮儒學者，『論語』「先進」篇〈浴沂章〉，狂

▪ 논문투고일 : 2011.5.31 심사완료일 : 2011.7.30 게재결정일 : 2011.8.5